

■ 이대통령 '개각 카드' 꺼내 들까

강만수 포함 경제팀 교체설 나돌아

청와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각이 새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각은 집권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다 여권의 권력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각이 실현될 경우, 호남 인맥의 중용 여부도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개각에서도 호남 인맥이 외연 당할 경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 내각 구성이 물 건너가는 데 호남 민심 이반이 고착화되는 등 여론의 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각설에 대해 “지금은 경제 살리기 우선이며 개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이 개각을 얘기할 때”는 말로 조기 개각설을 일축했다.

박근혜 홍보기획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인사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국면전환을 위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그간 “국면전환을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개각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권 주변에선 개각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팀과 외교안보팀, 일부 사정리인의 교체설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기초검증 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후임자 암축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권 일부 인사들은 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비상경제정부체제’ 구축을 선언한 것도 경제팀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경제 살리기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느슨해진 국정을 다잡으려면 싫든 좋든 개각을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손경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쪽은 조석래 전 경련회장, 오른쪽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靑 공식 부인 불구 조기 개각설 솔솔

호남 인맥 중용 여부 이슈로 부상

단행해야 하고, 그 시점은 설 전후가 적당하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 및 야당과의 관계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조기개각에 대한 부정적 전망 또한 적지 않다. 방송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핵심 경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불리한 개각을 단행할 경우 야당을 자극하면서 정부의 경제 살리기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을 보면서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 전후 또는 아예 그 이후에 개각을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개각설과 관련, 호남 인맥의 중용 여부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도 호남 인맥이 외연당하고 특정 지역 출신들이 약진한다면 호남의 민심 이반은 고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정부부처 장관 가운데 호남 출신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부 장관 등 단 두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설 이전 개각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특히, 개각이 이뤄질 경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통합의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호남 인맥이 중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경제살리기 앞장서 주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손경식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쪽은 조석래 전 경련회장, 오른쪽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홍준표 책임론' 뚜렷한 시각차

강경파 “쟁점법안 처리 못해… 교체 검토를”

온건파 “가합의안 이끌어 낸 점 평가해야”

쟁점법안의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홍준표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의 거취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시각차가 뚜렷하다.

홍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이 전쟁을 마무리짓고 책임론을 듣겠다.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하겠다”고 말했지만, 미쳐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원내지도부 ‘진퇴 논란’이 불거진 것.

쟁점법안의 조속한 일괄처리를 강조해온 당내 강경파측에서 주로

‘홍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그동안 대화와 타협에 방점을 둔 온건파가 ‘홍준표 응호론’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지난 2일 의원총회 때만 해도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였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내 직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게 논란의 기폭제가 됐다.

친이(친이명박)계 한 재선 의원은 5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다면 국회의장이 그런 결단을 내

렸겠느냐”며 “교체 문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온건파를 중심으로 한 ‘홍준표 응호론’도 만만치 않다. 쟁점법안을 임시국회중 관찰하지 못한 원내대표의 책임도 있지만, 야당이 ‘결사항전’을 외치는 엄혹한 정치 환경에서 ‘가합의안’을 이끌어낸 점에 대해 분명히 평가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야당과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의 한복판에 서있는 홍 원내대표가 ‘완충 역할’을 자처,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계속 뛰어들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한나라 또 시끄럽겠다

이재오 올봄 귀국 계획에 친박계 반대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4일 자신의 인터넷 팬 카페인 ‘재오사랑’에 올 봄 귀국 계획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전 의원의 귀국은 국회 입법전쟁의 와중에서 당첨을 아우르는 ‘컨트롤티벌의 부재’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는 여권의 권리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벌써 한나라당은 ‘친이대 친박’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팬 카페에 “을 겨울 미국 남미 아프리카 유럽 중국 봉골 러시아 인도 동남아를 돌아 한국으로 간다”고 밝혔

다. 그는 또 “새해에는 오랜 시간 이 걸리지 않아 여러분 곁으로 갈 준비를 하겠다”며 “이제 한국에서 서로 별들고 울고 웃으며 서로 슬픔과 기쁨을 나누자”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이 미국비자 만료 시한인 5월 이전에 귀국할 것 이란 예상은 있었지만 자신이 구체적으로 귀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의원 측근들은 3월 전후가 돼야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오계 의원 및 그의 지지자들은 창업 일등 공신이자 추진력 강한 이 전 의원이라면 여권이 저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친박계는 물론이고, 친이계 일부까지 계파 갈등을 우려하며 이 전 의원의 귀국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친박계의 좌장 김무성 의원은 ‘월간총선’ 신년호와의 인터뷰에서 “(친박계는) 지금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있는데, (이재오 전 의원이) 들어온다면 이제 또 친박계를 또 치려고 할 테니까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신발끈을 둘리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타원비교거부 =

줄이온반

고시학원의 절대강자

검색창 ► "광주한빛고시학원" 방문환경

★★★ 7·9급 공무원 합격의 대세는 ★★★

"역시" 한빛고시학원

[북구청앞 062) 234-0324 www.hanbitgosi.co.kr]

= 조기마감, 선착순 접수 =

올 문제풀이반

▶▶▶ 2월 2일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첫 진도
(기본서 이론)
개 1월 5일

- 최강의 교수진!
- 저자직강!
- 신관식 교수
서울 강남, 노량진 출강!!
- 이건호 교수
서울 종로, 분당 출강!!
- 이유종 교수
서울 노량진, 분당 출강!!
- 장경중 교수
현, 세무사 9년 세법 강의!!

주택관리사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 진도 개강_1월 2일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한글파워
국비지원 개정법률 해설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충출강!!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
급
공무원
특강**

30 주부특별반

40 해교 세관 감법 검마 철출교 보보복 전소기단

• 주·야간 생활리 강의중 정육무 세사원 활약 공관정 전호지 산방술과

• 09년 시험안내

• 시험일자 : 9급 국가회 4월 11일, 지방회 5월 23일, 7급 7월 25일 시행

• 체험인원 : 국가회 3,267명, 지방회 3,242명 도모

• 출서율 90%, 겸기 685, 전남 308, 광주 119, 전북 206명

10 기능 직종

• 일반상사, 한국사 2과목.

• 내년 소방직(서·도별 채용인원)

• 서울 225명, 부산 72명, 대구 81명, 인천 258명, 광주 90명

• 대전 78명, 울산 68명, 경기 250명, 강원 60명, 충북 110명

• 충남 128명, 전북 30명, 전남 50%, 경북 171명, 경남 135명

개강
1월 2일 (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내년 소방직(서·도별 채용인원)
광주 동부서 뒤
(증강초과 후문)

무동고시학원 ☎ 222-4560
www.mdgosi.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에게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5일(주,야)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재직자반은 개강일 전에 수강신청 해야합니다.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45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국비지원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지원금 선착순 60명 (061) 277-8111

서구점 ☎ 361-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개강 1월 5일

하당지구 목포기독병원 앞
대성학원 3층 건물